

2002.3.21 맷돌 총회 준비회의 검토용 초안(개요에 가깝네어)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 실태는?

정의: 영세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한의 임금.

법안에 명시된 최저임금법의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말은 어찌나 뻔지르르한지)

월 47만4천600원. 이것은 현재 시행 중인 법적 최저 임금제의 액수이다. 본래 최저임금제는 주변부 노동자들의 상대적 저임금을 해소하고 다른 노동자들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 소득분배를 개선한다는 긍정적인 취지로 출발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저임금은 18세 단신노동자 생계비의 80%,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21% 수준으로 물가상승과 생계비 수준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후퇴할 수 없는 마지노선

(왜 최저임금이란 게 여성노동자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지?)

-최저임금은 여성노동자의 저임금을 온존시킨다.

: 여성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 기혼 여성이며 그녀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가사 노동과 양육의 전담자로 간주되는 한 여성들이 비정규직에 취업하는 것은 자연스럽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현재 정규직 노동의 비정규직으로의 대체는 여성의 직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야 한다는 점은 이를 손쉽게 만드는 요소이다.

많은 비정규직 용역 업체 여성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된 임금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용역업체들은 위탁 업체와 최저 입찰가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가능한 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하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낮춤으로써 저비용을 제시하게 된다. 이 때 법적 최저 임금은 여성 노동자의 임금의 결정 기준이 되고, 결과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온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을 조금이나마 올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식은 최저 임금 인상에 있는 것이다.

-왜 여성노동자들은 단신 생계비인 최저 임금제 인상을 요구하는가:

남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는 대부분 부양가족 수에 의거한 가족 생계비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여성 독자 노동조합에서는 단신 생계비인 최저 임금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 임금제는 남성 노동자에게는 여성 노동자들만큼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1)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 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저임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부양가족수를 산출하여 가족 생계비를 요구하게 되면 현재의 임금과의 격차가 너무 커서 100%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 상 불가능하다.(인천 여성노동자회 외, <여성노동자와 임금>, 동녘)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는 성별, 학력별, 직종별 임금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제조업 내에서 여성 노동자들 대부분이 저학력군으로 취업해 있고 저임금 직종에 편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여성 노동자들은 성차별 외에 학력 차별, 직종 차별을 동시에 받고 있다.

2)여성에게는 부양가족이 없다? (웃기네! 웃기는 소리 하네)

-이는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가족 임금 이데올로기 영향이 더 크다. 뒤에서 가족 임금 이데올로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씹어보자.

>최저임금 인상 투쟁: 가족 임금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가족 임금제란 무엇인가?: 가족 임금제라는 제도가 이데올로기가 되기까지

가족 임금제family wage system은 남성인 가장에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주는 제도이다. 자레스키의 <자본주의와 가족 제도>에 따르면, 가족임금은 “가족 성원이 밖에 나가 일하기보다는 남성 한 사람이 자신의 부인을 집에 머무르게 하여 자녀 양육을 하며 가족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받도록"하는 제도이다. 이는 19c말에서 20c초까지 점차 정교화되어, 노동자 계급 가족에게 있어 하나의 규범적 모델이 된다. 그 이전에는 이러한 제도와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이전에도 가족 단위의 대표자, 지배자로서의 가장 개념은 존재했지만 가장이 생계 책임자로 규정되지는 않았다.(역사를 좀더 서술할까)

가족 임금제에 따라 정착된 사회에서 생계 책임자인 남성과 가사노동 전담자인 여성의 구별은 소수 중산층 가정의 이상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근대 산업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각국의 상황에 따라 그 양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20c 초에 형성된 가족 임금제도는 오늘날까지 사회규범이나 이데올로기로 존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 가족의 생계 부양자로서 남성을 가정하고, 이에 따라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남성 노동자의 임금을 여성 노동자보다 높게 책정하는 가족 임금 이데올로기가 널리 퍼져있다. (1999년 1월에 있었던 농협의 여성 우선 정리해고를 예로 들어볼까)

-그렇다면, 가족 임금의 문제점은?

1) 여성 노동자의 이중 부담

가족 임금제는 한 가족의 생계부양자인 남성 즉 1가구 1부양자를 가정하고 있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임금제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임금 노동과 가사 노동이라는 이중 부담을 낳았으며, 여성 '가장'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했다. 가족 임금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무급 가사 노동을 전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여성이 가사 노동을 거의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가족 임금 상승이라는 투쟁 목표는 곧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2)성별 분업 및 공/사 분리의 강화→여성 개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가족 임금은 성별 분리의 핵심 기반. 여성이 가정 내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통념 강화. 사적 영역(여성의 영역)/ 공적 영역(남성의 영역)의 분리를 강화. 산업 사회에서 여성들은 잠재적으로 결혼하는 존재이며, 가족의 남성 구성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이며, 일차적으로 가정주부이며, 비합리적인 존재로서 간주됨으로써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 성별 분업의 강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열악한 지위를 강화. 가족 임금 이데올로기, 남성 가장의 신화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때에도 여성들은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간주하는 주장을 영속시킨다. 또한 여성들의 노동은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수적인 것, 주변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가정에서의 일차적 지위 때문에 여성의 노동력은 임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가계 보조자로 규정되고, 여성들은 노동 시장에서도 대체로 가정에서 해 왔던 그러한 종류의 영역-낮은 직업 지위와 임금-에서 일하게 된다.)

여성과 남성간의 임금 격차를 정당화 한다, 임금 격차 및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 보장 제도는 남-녀에게 차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빈곤의 여성화'를 가중시킨다

여성에게 결혼은 생계의 기반, 즉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성 부양자를 찾는다는 의미로→가내 성별 분업 강화/ 여성 개개인에게 생존권으로서의 노동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하게

3)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공모: 여성은 충격 흡수판? 여성의 실망실업자화 강화

가부장적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들은 가족임금으로 그들의 남편을 재생산시켜주기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하고, 이를 통해 자본이 남성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도 낮추어 주었다. 가족 임금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기혼 여성은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 일부를 남편의 임금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은 기혼 여성에게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임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이는 part time 노동이 왜 대부분 기혼의 주부 노동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노동력 가치 이하로의 인하, 즉 자본에 의해 지불되지 않는 노동력 재생산비의 '외부화'야말로 자본의 새로운 축적 기반이 된다. (H.Hartman은 "노동자 계급 남성들에게 제공된,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값싼 하녀"라는 표현을 쓰네요^^;; 가족 임금제가 여성 노동력에 대한 가부장적 이해와 자본주의적 이해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 해결책임을 좀더 자세하게 서술해야 할까. 가족임금제와 더불어 전업주부라는 사회적 존재의 출현이 동시에 일어나다.)

여성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 노동시장과 가정을 왔다 갔다 하는 집단으로, 쉽게 실망 실업자화되는 집단으로 실업률을 조절할 수 있는 집단으로 간주됨.

⇒우리는 여기서 최저 임금 투쟁이 남성 중심적인 가족 임금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본다. 최저 임금제는 '18세 이상 단신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로서, 독신 노동자가 독립하여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최저 생계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관련 글.

비정규직은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현상입니다. 실제로 여성노동자 중 73%가 비정규직입니다(서울여노자료).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뭐라고 분류하기 힘들 정도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저임금, 불안정 고용, 4대 보험을 비롯한 전반적인 노동자 권리가 축소됩니다.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이유는 여성의 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남성과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여성의 노동을 가치절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고용유연화 전략에서 여성노동력은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성노동의 변화 양상 중 비정규직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판매·서비스업의 급증입니다¹⁾. 현재 여성 전체 취업자 중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69.3%라고 하는군요(여성과 일 中). 이것을 단순히 비정규직과 같이 묶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 판매·서비스업종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것 맞는데,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 상냥한 태도, 친절한 미소 그 자체가 노동상품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일을 하는 여성노동자의 '인'을 비정규직이 다 설명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그렇담 현재 여성노동상황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여성 노동자의 판매서비스직 중심으로의 비정규직화'가 아닐까. 이 둘을 따로 그리고 같이 다루는게 어떨까요? 내 맘대로 전자를 1부, 후자를 2부로 나누고 아주 간략한 개요를 쓸게요^^;; 글을 넘 늦게 써서리..

>> 1부 여성노동자의 73%가 비정규직이라는 통계는 무엇을 말하는가?

1.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비정규직이 뭐고 실제 여성들이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거지?

(비정규직의 분류에 대해선 굉장히 많은 기준과 범주가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나 비공식 부문 등 형태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고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일단은 해왔던 분류를 간략히 정리합니다.)

- 특수고용직(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판매원, 학습지 방문지도교사, 방문 판매원 등의 외근형 노동자부터 가내노동자까지)
- 비공식부문
- 계약직, 파트타임, 파견근로, 용역, 하청..

각각의 노동 실태

▷비공식부문은 뭐야?

2. 원인

▷그렇담 왜 유독 여성들에게 비정규직이 많은건데?

- 신자유주의적 노동 유연화 전략
- 여성의 일은 임시적이고 미숙련이며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
- 가사, 양육에 대한 부담

3. 결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뭐가 안좋은데?

1) 비정규직은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나눈 분류고, 이것은 업종별 분류이지요. 물론 이 안에서도 전문직과 비전문직이 있으나 대체로 미숙련, 저임금입니다.

- 저임금
- 불안정한 노동
- 4대 보험을 비롯 전반적인 노동자의 권리가 축소됨

4. 이슈

- ▷현재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어?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법 투쟁
- 방송사 구성작가 노조

5. 참고

- ▷현재의 근로기준법과 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의 권리는 뭐야?

>> 2부 여성노동자의 70%가 판매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²⁾

1. 판매 서비스직 여성노동자의 실태

- ▷판매 서비스직은 어떤 일을 말하는거지? 그리고 노동조건이 어떻길래?

2. 원인

- ▷왜 유독 여성들에게 판매 서비스직이 많은건데?
-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 여성성 그 자체가 노동자원, 노동상품이 됨
- 전세계적으로 제조업 생산의 둔화, 금융 서비스업으로의 전환

3. 결과

- ▷그래서 여성노동자들에게 어떤 해가 되는데?
- 감정노동

2) 그런데 (성급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만일 이 둘을 운동으로 가져갈 때 어떤 구호를 외칠 수 있을까? 전자는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면 되는데 후자는 '서비스업 철폐'.. 이상하지 않은가.

맷돌의 체계

1. 단위와 맷돌의 역할, 관계

이 문제는 '맷돌은 단위연대체이다'라는 점을 전제로 해야겠죠.

제 판단엔 현재 맷돌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도 여성노동에 깊은 관심이나 소스가 풍부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활동으로 분출되면서 맷돌을 하게된건 아닌거 같아요. 이 말은 각 단위들이 여성노동에 대해 고민을 안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동인이랄까, 맷돌이 아닌 단위들과 비슷한 면도 많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전에 맷돌의 역할을 잠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기회를 열어주는, 동을 뜨는 역할. 그건 맷돌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간단히 말하면, 맷돌을 같이함으로써 여성노동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점.

어쨌면 이걸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거죠. 그리고 이런 역할은 단위 책임자로 맷돌회의에 나오는 사람들이 채주껏(?) 해야할 부분이구요. 하지만 현재 그것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죠. 그것이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모르는게 많고, 또한 단지 얘기함으로서가 아닌 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한 소통이 되기 위해, 그리고 단위 간 소통이 단위 내 뿐만 아니라 맷돌 단위들끼리 집단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쭈~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단위들과 함께 하는 정기적인 활동을 박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총회를 잡는 것처럼, 사안과 활동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총회나 노동학교를 잡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총회를 박아놓고, 총회에서 얘기되는 것의 성격에 따라 노동학교형태가 나올 수도 있구요. 매달마다 얘기할 꺼리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당장 정세라는 것도 있고 정기적인 판도 있고 하니 말입니다. 지금 당장 생각을 해봐도 4월 메이데이/ 5월 메이데이 평가와 이후 활동에 대한 모색/ 여름방학때는 여성연대 한판/ 9월 2학기 계획 등등..

그리고 정세적인 이야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이나 장기적인 여성노동관련한 주제를 잡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레드가 말했던 여름 현장활동(농활, 환활, 실천단..)에 대한 개입, 혹은 여성노동 세미나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 학생회 선거를 맞아.., 사회단체와의 연대, 졸업 취업 시즌, 여성주의적 노동이란 대체 무엇인가? 등등 할 수 있고도 필요한 일은 얼마든지 널려있으니 말입니다.

좀 걱정되는건, 준비가 가능할 것인가는 둘째치고 과연 이런 총회나 노동학교라는 형식을 매달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한 달에 한번이라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그건 해봐야 알거같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맷돌에서 단위별로 논의할 수 있게 내용을 만들고 단위별로 쉼막 얘기하고 그걸 수렴하는 형태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암튼, 그런 부분은 유동적으로 남겨두고 일단은 정기적이고 장기적인(하하, 말장난같네요) 맷돌의 활동을 하나 잡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맷돌 내부의 긴장감을 위해서도 더더욱--;

그렇담, 그런 기제로 단위와 맷돌간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는가? 암만 한 달에 한 번 모인다고 해도 시간적 간격도 길고 아무래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연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걸리네요.

이것 또한 아쭈~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건 맷돌에서 고민하는 것보다 각 단위에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할 것 같아요. 단위 내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듯. 간단히 말해서 표류처럼 세미나를 꾸리던가 여모의 경우 잘 안굴러가는(--;;) 일터를 열심히 굴리고 살맛의 경우 #1의 활동이 계속 있어야겠지요.

2. 그럼 맷돌은 뭐 하고 단위는 뭐 해?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생각하기 쉬운 것부터 씁니다.)

-맷돌

지난 회의때도 얘기된거지만, 웬만한 내용 논의나 사업 기획 등을 다 하게되겠죠. 물론 단위간 피드백이 잘 된다는 전제를 깔고. 지금 총회 준비하는 것처럼, 내용 준비나 글 분담 같이하고 검토하고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세미나도 하고. 딱히 내부에서 역할분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 회의 정리, 연락망 등은 돌아가면서 합시다.

선전 같은건 단위 별 역분을 하자고 했죠.

-단위가 해야할 최소한은?

단위 내에서 여성노동관련 활동 내용은 뭐였으며 어떻게 했으며 평가는 어떠하며 등등.., 단위별 정세 분석, 각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글을 정기적으로 쓰는 것. 맷돌과 다른 단위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이건 맷돌 회의에 안오는 사람들이 주로 쓰게하자^^;; 그리고 자료실에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훌륭한 소스가 될 듯.

그리고 사업별로 결합이 가능하게 하는건 어떨까요. 관심은 있으나 개인들의 사정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 자체가 광대할 때가 있으니. 예를 들어, 메이데이 기획단은 당연히 맷돌 말고도 여러사람이 같이 하겠지요. 그 밖에 어떤 주제나 사업이 대강 잡혔을 때 이런 의도로 이걸 할려는데 준비과정부터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고 거기에 결합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은근슬쩍 맷돌로?..)

> 개인 회원에 대한 얘기는 쓰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그러한 개인 회원이 있는지 잘 파악이 안되서요. 만일 개인 회원이 있다고 했을 때, 가능한 건 맷돌회의를 같이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